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 Peterson, John L., 'Libnah,' in D. N. Freedman (ed.), *The Anchor Bible Dictionary*, New York: Doubleday, 1992.
- Roubos, K., *II Kronieken*, POT, Nijkerk: G. F. Callenbach, 1972.
- Rudolph, W. *Chronikbücher*, HAT, Tübingen: J. C. B. Mohr, 1955.
- Rüger, H. P., 'Araber, Arabien,' in B. Reicke and L. Rost, *Biblisch-historisches Handwörterbuch: Landeskunde, Geschichte, Religion, Kultur, Literatur*,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9.
- Stähli, H. P., 'בִּנְיָן,' in E. Jenni, & C. Westermann, *Theologisches Handwörterbuch zum Alten Testament II*, München; Zürich: Chr. Kaiser Verlag, Theologischer Verlag, 1971.
- Stuart, Douglas K., 'David's "lamp" (1 Kings 11:36) and "a still small voice" (1 Kings 19:12),' *Bibliotheca Sacra* 171 no 681 Ja-Mr (2014): 3-18
- Thiele, Edwin R., *The Mysterious Numbers of the Hebrew Kings* 3rd rev., Grand Rapids: Zondervan, 1983.

세월호 재앙을 구속하기: 신약의 관점에서

Redeeming Sewol Ferry Disaster from the New Testament Perspective

송영목*

고신대학교 신학과 신약학 교수

목차

들어가면서 | 33

1. 인재 혹은 천재? | 35

2. 하나님의 선한 뜻과 재앙 | 39

3. 인간이 초래한 재앙에 담긴 하나님의 선한 뜻 | 42

4. 세월호 사건이 한국 교회와 사회에 주는 교훈 | 44

나오면서 | 48



요약

세월호 재앙을 구속하기: 신약의 관점에서

일제가 미개한 조선을 식민 지배한 것과 한국 전쟁은 미국을 남한의 우방으로 두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의 교회 강연이 뜨거운 이슈가 되었고, 논란이 거세지자 그는 후보에서 자진 사퇴했다. 문창극의 발언은 친일, 친미, 수구, 및 사대주의라는 비판을 받았고, 한국을 구약의 이스라엘과 동일시한 문제를 지닌다. 문창극의 논리대로라면 2014년 4월 16일 진도 부근에서 발생한 세월호 참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발생했기에 단순한 인재(人災)가 아니며, 단순한 천재(天災)도 아닌 것은 하나님의 긍정적인 뜻이 배후에 감추어져 있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이 일어난다. 세월호는 인재인가 천재인가? 만약 인재라면 배후에 하나님의 선한 뜻은 배제되어야 하는가? 인재와 천재는 동전의 양면인가? 하나님의 선한 뜻과 재앙도 동전의 양면으로 볼 수 없는가? 이 글은 이런 질문들을 염두에 두고 하나씩 답을 찾아보도록 한다. 세월호 사건이 인재이지만, 하나님의 경고와 선한 뜻을 내포하고 있음을 논증할 것이다. 한국 교회는 세월호 재앙을 고통당한

세상과 동고하며 섬김으로써 구속하고 기회를 선용해야 한다. 또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교회 안에 등자를 짓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적폐를 개혁해야 한다.

* 송영목교수는 고신대 신학과 및 신학대학원, 포캠프스트롬대학교(Th.M. 누가복음 전공), 요하네스버그대학교(Ph.D. 요한계시록 전공)에서 공부했다. 쓴 책으로는 '신약주석', '헬라이어강독의 원리와 실제', '신약신학', '신약과 구약의 대화',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요한계시록의 신학', '삶과 삶의 중심이신 그리스도',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과 구약의 대화' 등이 있다. 그는 요한복음, 베드로전서, 요한계시록, 그리고 신약의 구약 사용에 관심이 많다.



요약

Redeeming Sewol Ferry Disaster from the New Testament Perspective

주요어

세월호, 인재, 천재, 하나님의 뜻, 구속

Abstract

Redeeming Sewol Ferry Disaster from the New Testament Perspective

Prof. Dr. Song Young-mog

This paper probes the will of God in the Sewol ferry disaster which took place on the 16th, April 2014, in which 304 people died. The ex-candidate for prime minister Changgeok Moon's address in a local church raised a burning debate on what is the will of God. The Japanese rule over the savage Chosun people and the Korean War were the will of God who wanted to bless Chosun and to put the USA on South Korea's side. Moon's address has been criticized because of his one-sided pro-Japan and pro-USA perspective, as well as his naive identification of Korea with God's chosen people, the Old Testament Israel. Owing to his address, Mr. Moon was forced to resign from his position as prime minister candidate. If Moon's logic were correct, the Sewol ferry accident took place according to God's will, so it would not be a man-made disaster. Here, several questions arise: Is the Sewol ferry accident a man-made disaster or a disaster permitted by God? If it is a man-made disaster, should the hidden will of God be removed? Can the man-made disaster and the disaster permitted by God be regarded

as two sides of a coin? Is it possible to regard the good will of God and the disaster as two sides of a coin? Considering these questions, this paper investigates answers to them. The present researcher comes to the conclusion that although the Sewol accident was a man-made disaster, it implies both the good will of God as well as God's admonition toward the Korean church and society. The Korean church has to make use of the God-given opportunity to share pain with the suffering and to serve them. The deep-rooted evils caused by the neo-liberalistic capitalism should be reformed too. This is a way of redeeming the Sewol ferry disaster.

Keywords | Sewol ferry, Man-made disaster, Disaster permitted by God, God's will, Redeeming

들어가면서

한국에서 매년 해난 사고가 약 700건 발생한다. 그 중 20톤 미만의 소형 선박 충돌 사고가 제일 많다.²⁾ 2014년 4월 16일, 진도 부근에서 304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다. 100일이 지난 2014년 7월 24일에서 볼 때, 사망 294명, 실종 10명이다. 이를 두고 여러 학회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문제점을 진단했다.³⁾ 신학계도 예외는 아닌데, 총신대 『신학지남』 81(2014, 2)은 세월호 사건에 대한 성경적 진단을 나름대로 내렸다.⁴⁾ 기고자들

2) 신현식, “우리나라 선박 통신 운용에 관한 연구(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를 중심으로),”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9(2014, 6), 633.

3) 학회지로는 해양한국, 한국방재학회지, 지방자치, 노동법률, 사법행정, 과학기술학연구,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복지동향, 통일한국, 관훈저널, 플랫폼, 과학동아, 한국노어노문학회소식, 수필시대, 경제와 사회, 인물과 사상, 문화과학, 황해문화, 역사비평, 역사와 현실, 한국라깅과 현대정신분석학회, 마르크스주의연구,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지, 민들레, Electric Power 등. 『기독교사상』 2014년 7월호, 『복음과 상황』, 2014년 6월호(vol. 283), 『목회와 신학』 2014년 7월호는 세월호 사건은 한국교회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다루었다. 구원파의 그릇된 구원관, 도덕불감증, 배금사상, 인명 경시 사상 등이 한국 교회에도 뿌리 내리고 있다는 진단이다. 참고로 6월 5일 성공회대 학생들은 세월호 시국선언에 동참했고, 서울신대, 총신대, 장신대 학생과 교수는 특별법 재정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거나 성명서를 발표함으로써, 소위 보수와 진보 진영 모두 동참했다. 복음주의 진영의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기독교인 모임’의 촛불 집회도 매주 목요일 열리고 있다. 인터넷 기독교 언론 매체인 ‘개혁정론’(www.reformedjr.com)도 이 주제와 하나님의 뜻을 간략히 다루었다.

4) 김희석, “지도자의 통치원리로서의 ‘공의와 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언약신학적 반추,” 『신학지남』, 81(2014, 2), 27-28; 박건택, “세월호 참사와 신학교육,” 『신학지남』, 81(2014, 2), 3-6; 오성호, “세월호 참사에 관한 구약 신학적 교훈,” 『신학지남』, 81(2014, 2), 33-63; 이풍인, “세월호 참사와 희생양 메커니즘,” 『신학지남』, 81(2014, 2), 88-112; 신현우, “공관복음서를 통해서 본 세월호 참사,” 『신학지남』, 81(2014, 2), 65-86.

은 구약의 의로운 하나님과 선한 목자와 정반대편에 서 있는 세월호 선장 같은 불의한 지도자들을 질책하고, 희생된 304명을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 죄인들이 아니라 불의한 사회구조의 희생양으로 이해했다. 그리고 기고자들은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의 물질숭배를 경계하고,⁵⁾ 사회학적 회개를 통한 원칙과 공의가 회복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을 제안했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 약 2달 후,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의 하나님의 뜻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다. 일제가 미개한 조선을 식민 지배한 것과 한국 전쟁은 미국을 남한의 우방으로 두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문창극씨의 교회 강연이 뜨거운 이슈가 되었고, 논란이 거세지자 그는 후보에서 자진 사퇴했다. 문창극의 발언은 친일, 친미, 사대주, 운명론이라는 비판을 받았으며, 조선(한국)이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이라는 시대착오적인 사상에 근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⁶⁾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 안에서 우주적인 하나의 교회가 있을 뿐, 혈통적이고 민족적인 선민이 없기 때문이다. 문창극은 하나님이 한국과 미국을 사랑하시는 것은 맞지만, 한국과 미국이 교회 자체가 아니라는 평범한 이치를 간과한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는 세상에서 일어난 일에 내포된 심층적 분석을 생략한 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자신의 신앙

5) 세종대의 이은선은 MB정부 이래로 마성을 드러낸 정치와 경제의 불의한 합병인 신자유주의의 적폐를 지적한다. 이은선, “세월호 참사 이후의 한국 교회 여성과 정치,” 『기독교사상』, 2014년 7월호, 161-62를 보라.

6) 참고. 안재경, “하나님의 뜻은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2014년 7월 23일자 개혁정론 홈페이지. 조선 시대 철종 당시의 탐관오리의 만행에 저항했던 민초의 삶을 그린 ‘군도’(2014년 7월 23일 개봉)에 “운명을 바꾸기 위하여 인생을 건 자의 칼을 받겠다”는 대사가 나온다. 하지만 바울은 운명을 달리 해석한다. “갈라디아서는 칭의에 대해서 세밀하게 설명함으로써, 개인의 영원한 운명이 사적 행위, 제의에 참여함, 혹은 집단 규범을 준수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고대와 현대를 망라한 모든 개념에 반기를 든다.” 안드레아스 퀴스텐버그, 스캇 켈럼, 찰스 켈츠, 『신약개론: 요람, 십자가, 왕관』(서울: CLC, 2013), 499. 구원과 복음의 은혜는 운명론을 무용지물로 만든다.

정서에 따라 나이브하게 보편화시켰다는 비판도 받았다. 하나님은 악과 불의 조차도 조장하셔서 자신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아니다. 그런데 세월호와 문창극의 발언을 연결하여 비판적으로 고찰한 시도가 필요하다. 문창극의 논리대로라면 선민 국가인 한국에서 발생한 세월호 사건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발생했기에 단순한 인재(人災)가 아니며, 단순한 천재(天災)도 아닌 것은 하나님의 긍정적인 뜻이 배후에 감추어져 있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이 일어난다. 세월호는 인재인가 천재인가? 만약 인재라면 배후에 하나님의 선한 뜻은 배제되어야 하는가? 인재와 천재는 동전의 양면인가? 하나님의 선한 뜻과 재앙도 동전의 양면으로 볼 수 없는가? 망각과 싸우고 있는 세월호 사건을 신약의 관점에서 새기기 위해서, 이 글은 이런 질문들을 염두에 두고, 세월호의 원인만 진단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교회가 세월호 재앙을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구속(선용)할 수 있을지 해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1. 인재 혹은 천재?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이동연은 세월호 참사를 묵시실존적 사건으로 규정한다. “묵시적인 것은 재난의 상태가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끔찍하기에 재난의 순간이 그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계시의 순간 같기 때문이다. 그것이 실존적인 것은 사태의 원인이 언제나 이미 내재되어 있어 그 재난이 현시와 징후의 순간들을 반복하며 또 다른 재앙으로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이다.”⁷⁾ 위의 주장은 세월호 사건이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7) 이동연, “리멤버 미: 세월호에서 배제된 아이들을 위한 묵시록,” 『문화과학』, 78(2014), 22.

너무나 참혹할 뿐 아니라, 교회와 사회 곳곳에서 재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우려를 지울 수 없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만약 세월호가 인재가 아니라 천재라고 믿는다면 운명론으로 귀결하는가? 모든 재앙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보는 루터, 칼빈, 존 웨슬레 그리고 최근 존 파이퍼와 한국의 일부 대형교회 목사들이 이 입장에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견해에는 만유에 임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는 편리한 장점은 있다. 이 편리한 장점은 하나님의 통치와 뜻이 실현되는 방식과 과정에 대한 고민은 물론, 하나님의 뜻을 세상 사건에 여부할 수 있는 성경적 검증은 간과할 때 가능하다. 바울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만유에 실현된다고 주장하지만(엡 1:23),⁸⁾ 하나님의 주권이나 섭리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직접 연결시킬 때는 주의가 요망된다.

그런데 천재는 하나님이 초래하신 재앙을 가리키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앙을 의미하는가? 천재와 자연 재해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자연 현상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므로, 그리스도인은 이신론적(deistic)이고 가치중립적인 표현인 ‘자연재해’를 이신론적으로 방치할 수 없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피조물의 창지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자연재해도 있고, 하나님께서 자연을 사용하여 일으키시거나 허용하신 자연재해도 있다. 그런데 엉뚱하게 예수님이 대형 재난 사고 자체를 종말론적인 대재앙의 전조 사건으로 해석했다고 보면서(참고. 마 24:7-8, 21), 세월호 사건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전조라고 잘못 보는 경우가 목회자들 가운데 종종 있다.⁹⁾ 이것은 감람산강화의 문맥과 상징을 오석한 것이며, 의미를

8) K. Snodgrass, *Ephesians* (Grand Rapids: Zondervan, 1996), 86.

9) 예를 들어, 이문식,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적 성찰 요구하는 세월호 참사,” 『목회와 신학』, 7월호(2014), 77.

오늘날에 잘못 적용한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무고한 주님을 로마 군인에게 넘겨준 불신 유대인들의 죄와 맞물려 있다(행 2:23). 인간의 책임을 배제한 하나님의 뜻 논의는 부족하고 일방적이며, 더 나아가 운명론으로 이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동원된 도구라고 죄인을 미화시키고 죄를 정당화시키고 말 것이다. 만약 인간의 책임이 간과된 채 모든 사건들을 궁극적인 제일 원인자(Ultimate First Cause)이자 궁극적인 최종 원인자(Ultimate Final Cause)이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완화하면 ‘허락하신’) 재앙이라고 본다면, 1980년 광주의 봄에서 자행된 시민 학살과 2014년 7월 내내 진행 중인 시온주의자들이 주도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격도 하나님의 선한 섭리로 일어난 일이 된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공격한 행동의 정당성은 구약 이스라엘을 신약 교회가 대체했다는 대체신학에 반기를 든 세대주의신학과 시온주의의 지지를 받는다. 만약 이것이 옳다면, 반인륜적 만행을 저지른 일본과 군부 독재와 시온주의자들은 아무런 책임을 질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에 칭찬을 받아야 한다. 이런 논리라면 ‘강남복음’(Gangnam gospel)도 하나님의 뜻이며 성경적 개념이 된다. 불공정한 출발선에 서서 경쟁에서 뒤쳐진 가난한 자와 지방은 안전에 두지도 않고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와 기복신앙을 설파한 것이 ‘강남복음’이라면,¹⁰⁾ 특정 지역에서 집권자가 나와 그 지역의 안정을 끼고 그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그 지역에 국한된 복음 아닌 복음이다. 만약 복음이 특정 지역과 특정 인종에게만 ‘아멘’이 된다면 그것은 거짓 복음이요 사이비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부자와 기득권이 사회·정치적 약자들을 품지 않는다면 살림은 요원하다.

10) 참고. 문승숙, “한국 밖에서 본 세월호 참사,” 『역사와 현실』, 92(2014), 9, 11; 송영목, “신약의 복과 한국교회의 복 개념,” 『본문과 설교』, 3(2010), 171-96.

세월호는 사람이나 더 큰 조직이 책임을 져야 할 인재인데, 그렇다면 누가 혹은 무엇이 초래했는가? 이에 대해 객관적인 분석이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 선박을 30년간 사용하도록 2008년에 해운법 시행 규칙을 변경한 것, 승선 인원을 늘리려고 불법으로 개조한 선박 검사와 과적을 눈감아준 정부와 해운 관련 업체들, 안전 운항 규칙을 무시한 것, 사람을 기업의 부품으로 취급하면서 비정규직에 의존한 해운사,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상황 판단을 왜곡한 선장과 선원, 이윤을 위해서는 타인과 생명을 불모로 잡아 인권에 무감각해진 사회, 경제적 능력을 중요시하고 그것을 정신없이 숭배하며 돈과 자신의 안위에 노예가 된 사회, 구조에 무능한 정부와 해경 및 부패한 관료주의(bureaucracy),¹¹⁾ 잘못된 정보에 기초하여 상황 판단을 잘못된 언론의 보도,¹²⁾ 책임감과 자긍심이 낮은 비정규직의 열악한 근로 환경, 청해진해운과 연관된 구원파가 책임을 져야 한다. 한국 사회에 정치와 경제와 종교가 돌연변이 변종처럼 융합하여 공생 중이다. 이번 사고로 인해서 “도대체 국가가

11) 이철희, “세월호 참사가 한국 정치에 묻는다,” 『인물과 사상』, 194(2014), 107; 정태석, “세월호 참사를 사회재건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경제와 사회』, 102(2014), 6-11; 손 디모데, “공동체 안에 스며든 관료주의적 사고와 관습들,” 『목회와 신학』, 7월호 (2014), 80-83; 이은선, “세월호 참사 이후의 한국 교회 여성과 정치,” 162-63. 군사 독재와 유교적 권위주의 역사 속에서 공고해져버린 관료주의의 증후군 중 하나는 구성원 전체를 동반자로 대하며 섬기려하지 않고, (7월 22일 시체로 발견된) 유병언회장이나 세월호 선장처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적시에 탈출해 버리는 것이다.

12) 참사 특종 언론보도는 신속하게 하다 보니 검증이 안 된 자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도 경쟁에 내몰린 언론사의 이익이 초래한 신자유주의의 행태다. 참고. 방문신, “세월호 재난보도가 남긴 과제와 교훈,” 『관훈저널』, 131(2014), 15. 유병언의 장남 윤대균과 언론이 명명한 ‘미녀 호위무사’ 박수경이 체포된 것을 보수 종편 TV는 영상과 사진을 띄워 연일 대서특필했다. 이것도 모자라 언론매체는 유대균과 인터넷 검색 순위 상위에 랭크된 박수경의 이성관계에 호기심을 가지도록 유도했다. 이것에 대해 인권을 무시하고 세월호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방송사의 태도에 변화가 필요하다. *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많은 이들이 제기하는데, 국가가 책임 져야 한다는 강한 주장은 포스텍의 김기홍에게서 볼 수 있다: “국가는 우리의 생명을 관리하고 유지하며 보호하는 대상으로 보이지만, 어느 순간 폭력을 자행하는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 세월호 참사에서 우리 눈 앞에서 벌어진 것처럼 (Homo Sacer와 같은) 국가는 제주도 수학여행의 기대와 즐거움으로 충만한 우리의 아이들을 바다 속으로 휩쓸려가도록 방치하면서 극단적으로 정치적·법적 공동체에서 배제시키는 모습을 보였다.”¹³⁾ 따라서 전체 국민 혹은 불특정 다수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책임자를 지나치게 보편화시키는 우를 범하는 것으로 보인다. 온 국민이 고통을 분담하면서, 세월호 사건으로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범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가? 환언하면, 국민 모두가 공동책임적 존재인 것은 사실이지만,¹⁴⁾ 세월호 참사의 공범으로 몰면서 ‘집단 우울증에 걸린 대한민국’과 같은 과도한 표현을 쓰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세월호 사건은 부패한 인간과 거대한 맘몬주의 구조가 만들어낸 인재이다.

2. 하나님의 선한 뜻과 재앙

신약 성경은 경고와 재앙을 통해서 자신의 선한 뜻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종종 소개한다(마 24:21-22; 눅 13:1-5). 그 선한 뜻은 회복으로 인도하는데, 심판의 궁극적 목적은 궁핍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회개를 통한 회복으로 나타난다(참고 계 16:11).¹⁵⁾ 그런데 인간의 책임을 간과한 하나님의

13) 김기홍, “생명정치와 세월호의 아이들을 방치한 국가,” 『과학기술학연구』, 14(2014), 1, 181-82.

14) 김정재, “조난당한 한국 기독교,” 209.

뜻에 대한 논의는 맹목적이고 공허하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재앙과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책임과 연결되며, 인간의 책임을 무시하면 운명론에 빠진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로마서 11:33-35에서 바울이 인정했듯이, 세상의 그 누가 만물의 창조자요 섭리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겠는가?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만유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이다(골 3:11; 계 4:11).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이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한다”(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7).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책임과 별도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뜻이라 할 수 있는가?

혹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구분한다. 그래서 전자는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불변하는 계획의 성취에 초점을 두고, 후자는 피조물이 내리는 결정과 하나님께서 더 고차원적인 목표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피조물을 다루시는 방식에 있어서의 유연성에 초점을 둔다고 본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이 두 경우에 적용되지만 작동하는 방식은 다르다고 주장한다.¹⁵⁾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사이의 이런 구분은

15) R.T. France, *The Gospel of Matthew* (NICNT; Grand Rapids: Eerdmans, 2007), 915-16. 참고로 유대인들에게 있어 전후무한대 재앙(마 24:21; 계 1:7; 7:14)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새 언약 공동체의 회복과 본격적인 시작으로 발전했다. 하지만 마 24:21과 계 1:7 등을 최종 재림 구절로 이해하는 이가 많다. 예를 들어, K. de Smidt, “Revelation 1:7: A Roadmap of God’s telos for His Creation,” *In die Skriflig* 47(2013, 1), 1-8.

16) 예를 들어, 카톨릭¹⁾과 정신학자 J.A. Baracken, “God’s Will or God’s Desires for Us: A

철학자들의 언어적 유희로 비쳐지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작업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다른 각도에서, 어떤 행동이 도덕적으로 옳고 선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 그렇다고 보는 입장을 ‘유신론적 메타 윤리’라고 부른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이 발생한다: “불신자의 도덕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 “존재와 가치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행동의 옳음이 하나님의 뜻과 동일하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¹⁷⁾ 여기에 유신론적 메타 윤리를 지지하는 이들이 답해야 한다. 신약 성경은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인 의와 거룩과 진실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밝힌다(엡 4:24; 골 3:10). 물론 하나님의 선함과 옳음은 일반적인 세상의 옳고 선함을 배제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초월한다. 세월호 사건의 경우, 하나님의 옳고 선함은 물론이거니와, 세상의 도덕조차 충족시키지 못한 매우 저급한 비윤리적인 요인들이 원인으로 작동했다. 따라서 세월호 사건이 지고의 선과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주도하신 사건이라거나 그분의 선하신 뜻이라고 부를 수 없다.¹⁸⁾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Θέλημα)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기를 바라시는 일과 행동인데(마 26:39; 눅 22:42; 요 5:30; 6:38; 고전 1:1; 고후

Change in Worldview?,” *Theological Studies* 70(2010), 64.

17) 참고. R.A. Larmer, “Goodness and God’s Will,” *JETS* 35(1992, 2), 193-98.

18) 백석대의 김윤태에 의하면, 인간의 책임(혹은 밑으로부터의 관점)과 하나님의 주권(혹은 위로부터의 관점) 사이의 모순되어 보이는 진술은 아담의 타락과 가뭇 유다의 배반 등에서 볼 수 있다. 이 신비로운 긴장은 하나님의 숨겨진 절대적 뜻(hidden will of God)과 하나님의 나타난 제정된 뜻(revealed will of God)과도 연관있다(참고. 신 29:29).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인간의 책임을 두는 신칼빈주의는 그 역순을 따르는 알미안주의 혹은 웨슬리주의와 구분된다. 하나님의 뜻은 다음의 세 가지 영역에서 달리 나타난다: 세상, 교회, 삼위일체. 나중에 이 셋은 각각 행위언약, 은혜언약, 구속언약으로 표현되었다. 내재적 삼위일체의 숨겨진 뜻이 경륜적 삼위일체의 나타난 뜻으로 표현된다. 김윤태, 『칼빈의 삼위일체적 언약신학: 통일적 상호관련성(페리코레스시스)에서 본 하나님의 숨겨진 뜻과 나타난 뜻』(백석대 박사학위 논문, 2011), 7-9, 26, 172-73.

1:1), 삼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으로 성도를 구원하시는 것(마 18:14; 행 22:14; 엡 1:9; 히 10:10),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인 공의, 사랑, 진실(시 89:14) 그리고 고난을 무릅쓰고서라도 성도가 일상 가운데 거룩하게 사는 것(마 21:31; 눅 12:47; 행 21:14; 롬 2:18; 12:1-2; 엡 5:17; 골 4:12; 살전 4:3; 5:16-18; 딤후 2:26; 벧전 2:15; 3:17; 4:2)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¹⁹⁾ 당연히 신령한 지혜와 충명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골 1:9).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한 뜻과 세월호 재앙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 주제는 다음 단락에서 다룰 것이다.

3. 인간이 초래한 재앙에 담긴 하나님의 선한 뜻

앞서 지적했듯이 세월호는 선장과 같은 특정 사람을 넘어 사회 조직이 초래한 참사이다. 다수가 동의하듯이, 세월호는 기득권을 가진 부패한 관료인 관피아와 (구원파)교피아의 합작품이다.²⁰⁾ 민주사회에서 국가 권력은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지만, 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삼는 신자유주의에서는 정부를 자본의 하수인으로 만들어, 관료주의-기득권-불법 로비에 취약한 ‘관피아’와 ‘해피아’가 발생한다.²¹⁾ 이런 의미에서 세월호는 사람의 탐욕과 죄의 몸이 빚은 인재가 분명하다(롬 6:6).²²⁾ 이런 맥락에서 철학자 이도흠에

19) 참고. W. Bauer, *BDAG*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447.

20) 신현식, “우리나라 선박 통신 운용에 관한 연구,” 636. 참고로 『월간고신 생명나무』 8월 호(2014)는 이단 구원파를 특집으로 다루었다.

21) 문승숙, “한국 밖에서 본 세월호 참사,” 15. 소위 ‘해피아’는 부산의 특정 대학 인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고종석은 이것을 세월호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영남패권주의’와 연결 짓는다. 고종석, “세월호 참사와 그들 안의 파시즘,” 『인물과 사상』, 194(2014), 14-15.

22) 참고. 죄의 몸은 개별 그리스도인이 죄의 영향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 개념이라고 보는 T. Holland, *Romans: The Divine Marriage* (Eugene: Pickwick, 2011), 189.

동의하면서 김경재는 집권당의 국가 권력-대기업중심의 경제구조-국가와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어용언론과 어용학자들-그런 세력을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축복하고 인가해 주고 그 대가로 특혜를 받아 성장을 도모한 일부 대형교회의 카르텔(kartell)이 세월호의 원인이라고 세부사항이 담긴 거대 담론으로 진단하는데,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 적지 않다.²³⁾

세월호 사건을 인재라고 결론을 내리면 하나님의 섭리를 배제하는가? 그리스도인은 세월호가 인재이지만, 그 가운데 함의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아야 한다. 여기서 선한 뜻은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교훈을 얻도록 의도된다. 실제로 2011년 3월 거의 2만 명의 인명과 230조원 이상의 손실을 낸 후쿠시마 원전 참사를 겪은 나누어진 일본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하여 사회를 섬기고, 일본인들이 하나님과 복음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간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혹자는 이것을 ‘그리스도인이 재난을 구속함’(redeeming disaster)이라 불렀다.²⁴⁾ 마찬가지로 세월호에 하나님의 경고도 있지만 선한 뜻도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에 일본 교회가 분열되었듯이 게토화되고 나누어진 한국 교회가 재난 당한 자들을 일심으로 순수한 동기로 위로하고 섬김으로써, 세상을 섬기고 변화시키는 감화력을 회복해야 한다.

성도가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신천신지에는 사고와 참사 그리고 애통이 없고, 신해(新海)도 없다(계 21:1). 교회와 하나님을 대항하여 일어나는 혼돈과 불의와 적의를 상징하는 ‘바다’가 사라졌기 때문이다.²⁵⁾ 예수님은 이

23) 김경재, “조난당한 한국 기독교,” 210.

24) S. Park, “Redeeming Disaster: After Fukushima’s Tragedy, God moved Church Leaders to Disaster-Zone Frontlines, where They encountered Jesus in Fresh Ways while serving Their Neighbors,” *Christianity Today* 57(2013, 6), 40-45. 따라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일본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단순화 시켜서 말하는 것은 나쁘다.

25) 송영목, 『요한계시록: 반드시 속히 일들을 통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 (서울: SFC,

세상을 신천신지로 변혁을 일으키시는 중이다(계 21:5). 그렇다면 신천신지가 이미 종말론적으로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이 땅에 임해 있는데, 우리는 정의와 공의와 살림이 공존하여 하나님의 통치 원리로 이 세상에 작동하도록 할 수 있을까? 수많은 노란 리본을 단 수 많은 추모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한 ‘미안하다’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실천적으로 회개합니다”로 승화시켜야 한다. 자신의 무능과 죄악은 살피지 않은 채 타인을 개혁의 대상으로 낙인을 찍고 세상을 구원할 것 같이 개혁의 주체처럼 교만하게 나섰던 것, 주일 성수는 뒷전으로 하고 청소년들을 출세의 기반인 고득점을 위해서 학교와 학원으로 몰아부쳐 경쟁으로 내몬 것, 부정부패와 혼합주의와 야합한 것, 경건의 능력이라는 실속은 가뭇게 여기고 겉을 광명의 천사와 경건의 모양으로 번지르르하게 장식한 것을 회개해야 한다.

4. 세월호 사건이 한국 교회와 사회에 주는 교훈

앞서 지적했듯이 세월호 참사는 한국 사회의 인명 경시와 맘몬숭배, 산업화와 성장에 함몰된 기성 세대와 기득권의 부패, 구조 시스템의 부작동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하여 한국의 민낯과 현재 수준을 폭로한 사건이다. 그런데 교통당한 자들과 그들에게 공감하는 자들에게 ‘종북’과 같은 몹쓸 말로 딱지를 붙이고 폄해를 가한 물지각한 이들도 있는데, 여기에 일부 근본주의적 기독교인들도 포함된다. 대통령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세월호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과 보상은 아직도 요원한데, 이것은 참사 이후의 우리의 수준을 다시 보여준다. 세월호 수습을 위한 조사위 구성 및 수사권 부여 등을 두고 여전히

정치권은 씹박질을 하고 있다.²⁶⁾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앞에 두고, 위로하기는 커녕 채찍을 더하고 있는 일부 기독교인과 기득권을 가진 정치인들이 많다.

세월호 안에 기독 청소년들도 적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 자주 회자되는 단어는 신정론이다. 하나님은 덕스러운 사람들을 향해 무관심하거나 적의를 가진 것처럼 보인 비정상적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변호하려는 시도인 신정론에 대한 논의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탐욕에 제동이 걸리지 않는다면 이러한 인재의 강도와 빈도는 더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²⁷⁾ 하지만 신약 저자들은 복음 때문에 모두 박해를 경험했던 의로운 남은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의로움과 선함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참고. 계 19:2).

세월호가 남긴 긍정적인 면으로는 남을 구하려고 자기 목숨을 바친 교사와 학생이 있었고, 너무 혹독한 대가를 치르면서 사회의 구조적인 악과 취약성을 돌아볼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남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 아이’라는 공동체성의 강화, 가족의 중요성에 대한 재고, 고등학생들이 학업에 올인하도록 강요당한 성적지상주의에 대한 반성, 그리고 구원 받은 성도가 세상 속에서 실천하는 거룩과 공의로운 삶에 대한 강조 등이다. 성도는 편법 대신에 원칙, 물질 대신에 생명, 나 대신에 우리, 그리고 책임 전가 대신에 책임지는 모습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세월호로부터 교훈을 받아야 할 그리스도인이 사회와 교회의 부조리에 대해 방관하는 것은 부조리에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되고 만다. 그리스도

26) 2014년 7월 18일. 국민일보 3면.

27) 신국원, “재난 접근법: 신정론과 성경,” 『목회와 신학』, 7월호(2014), 48-52.

인은 악한 사회 구조에 반대하고 개혁하려는 의지적 선택을 해야 한다. 세월호 사건 앞에 성도는 기도와 회개를 넘어, 개인 의식과 사회 구조의 개혁과 변혁을 고민하고 행동으로 꾀해야 한다. 위험과 불의를 예방하는 규제를 법적으로 강화하고, 관피아같은 기득권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조직 구성과 운영을 투명하게 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규제가 없는 경쟁 구조 속에서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최대의 이윤을 내리는 자기 파괴적인 신자유주의를 보좌에서 끌어내려야 안전, 공평, 원칙, 윤리가 회복될 기반이 조성된다.²⁸⁾ 유혹하는 음녀 바벨론과 물질과 권세를 가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잠시 공생을 하지만, 이런 악의 세력 간의 협력은 오래가지 못한다(계 17:16). 마찬가지로 관료주의와 부도덕한 기업의 공생 관계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비극을 맞을 것이다.

대한민국에는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 성장의 이면에 인권 유린, 최장 노동시간, 낮은 행복감, 높은 임시직 비율, 매년 2,000명에 달하는 산업재해 사망자, 빈익빈부익부 현상의 심화, 극심한 경쟁의 정글, 높은 노인 빈곤율과 자살율, 낮은 행복감이라는 어두운 그들이 드리워져 있다. 한국은 겉으로는 선진국 대열 입구에 들어서 있지만, 속은 여전히 그렇지 못하다. 이 사실은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동시에 겸비한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돌아보게 한다. 교회당 건물과 조직을 갖춘 교회라 할지라도, 만약 성도가 남을 배려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할 여유 없이 개교회 중심의 양적 성장이라는 실용화된 목표를 이루기 위한 부품 취급을 받거나, 성도가 세상 속에서 사랑과 공의와 생명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신앙 공동체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28) 문승숙, “한국 밖에서 본 세월호 참사,” 11-12.

다른 실제적인 문제는 “그리스도인은 재난을 당한 자들에게 위로와 치유와 공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이다.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키고 폐부를 찌르는 말을 던지는 것은 절대적으로 삼가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한기총 부회장이 내뱉은 “가난한 학생은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면 안 된다”는 말이다. 2014년 7월 18일, 일단의 보수 단체는 단식 농성 중인 유족들에게 몰려와서 세월호 사건이 국가 경제를 침체시켰고 304명이 국가를 위해서 죽은 것도 아닌데 유족들이 왜 특별한 대우를 받으려 하는가라고 비판하는 시위를 벌였다. 불행하게도 그들의 주장에는 여전히 신자유주의 논리와 배급사상이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순서상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다가 죽을 기회조차 주지 않고, 기회를 박탈해 버린 국가와 사회구조를 질타하고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신속히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먼저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실족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성경적 원칙이다(롬 14:16). 두 말할 것 없이 약자는 세월호 유족들이다. 보수 단체 ‘엄마연합’과 같은 강자가 유족들에게 고통을 가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해하고 위로해야 한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야 한다(빌 4:5). 신자유주의에 익숙한 한국 교회는 돈을 거두어 유족을 도와주려는 노력에 머물지 말고,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모든 해결의 과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한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세월호로 희생된 그리스도인들이 바다에서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도 가르쳐야 한다(계 20:13).

더불어 한국교회는 칭의와 성화 곧 구원의 확신과 열매를 균형 있게 가르쳐야 한다. 세월호 사건으로 구원파가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이단임이 폭로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가 정통 기독교를 칭찬하지도 않는다. 구원파를 정죄함으로써, 기성 교회가 반사 이익을 얻으려 한다면 교회를 향한 사회의 따가운 눈총은 계속 될 것이다. 오히려 공익을 위한 이단종교 비판만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공신력을 얻을 수 있다.²⁹⁾ 그리고 기존 교회에게 이단과 다른 모습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개혁의 실천이 필요하다. 해피아와 판피아와 유사한 교피아가 한국 교회에 있지 않는가?

장기적으로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인 공의와 긍휼이라는 세계관을 정립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사회를 주도하도록 청소년들을 교육해야 한다. 전문적이고 정직하게 선박의 안전을 점검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기술 공무원,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중요시하는 그리스도인 선주, 전문적인 기술로 운항을 하며 승객의 안전을 먼저 배려하는 그리스도인 선장, 올바른 지혜와 판단력과 용기를 갖춘 그리스도인 해경, 성장과 더불어 분배의 가치를 아는 그리스도인 입법가, 돈보다는 인권을 먼저 중요시하는 그리스도인 행정가를 배출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환란 당한 자를 위로하는 그리스도인과 공공 영역에서도 정의와 성화를 균형 있게 나타내 보이는 성도를 필요하다.

나오면서

이 글은 목적은 세월의 망각과 싸우고 있는 세월호 사건이 인재이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을 함의하는 사건임을 논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고 적용해야 하는가? 먼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 그 경고는 교회나 사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른 재앙이 임한다는 것이다. 거짓 실용주의, 약육강식의 신자유주의, 맘몬숭

29) 탁지일, “이단문제 근본적인 대처 방안,” 『기독교보』, 8월호(2014), 51.

배, 기득권의 횡포를 회개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 더불어 복음의 공공성과 공적신학이 정립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한 교회가 사랑과 정의를 사회에 실천하는 일군을 파송해야 한다. 복음의 능력이 교회당 안에 갇힐 수 없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복음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신앙의 사사화(私私化)와 계도화를 벗어나는 것이며,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서 권력과 정치에 기생하려는 정치화된 교회를 극복하는 것이다.³⁰⁾

고난과 재난의 현장인 세월호 선실에 갇힌 자기 백성들과 고통당하시며 함께 계셨던 임마누엘께서, 교회가 이 재난을 구속하도록 회개의 영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지만 교회가 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선용하지 못할 경우에, 재난은 가중 될 것이다. 교회는 사사로운 인정 때문에 악인을 무조건 두둔하거나 악조차도 복음의 원칙대로 처리하지 않고 회색시키려는 악한 정치적 기득권 세력을 억제해야 한다. 이것은 교회와 기독교 기관 안에 악의 평범성(banality)을 억제하고 거룩의 평범성과 복음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길이다.³¹⁾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비리로 얼룩진 영남 해안가에 밀집한 원자력 발전소를 주목해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만유를 새롭게 하시는 현재적 사역과 장차 있을 세상의 온전한 갱신에 교회가 동참하는 실천적 방법이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최악된 옛 질서와 더러운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궁극적으로 정화되어 갱신될 신천신지를 소망한다(벧후 3:12-13).

30) 신원하, “세월호 사건을 통해 교회의 정치적 책임을 다시 생각해보다,” 『목회와 신학』, 7월호(2014), 190. 개 교회의 문제는 당회와 같은 지도자들이 초래한 경우가 적지 않은데, 정작 개 교회의 문제 해결에 능력이 결여된 지도자들이 일반 성도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함으로써 민주주의보다 못한 기득권 교회 정치를 행하고 있지 않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31) 이은선, “세월호 참사 이후의 한국 교회 여성과 정치,” 171.

세월호가 탐욕을 제어할 제어 장치가 고장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체제를 향해 주어진 심판의 메시지라면, 정부와 그리스도인은 잘못된 시스템을 달게 고쳐야 한다. 교회는 타산지석으로 삼아 교회의 존재 목적과 정체성과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을 해야 한다. 그것이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선용하여, 세월호 재앙을 구속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세월호가 끔찍한 사건임을 깨닫는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이 악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여호와와 크고 두려운 날은 얼마나 더 무서울 것인지 인지해야 한다(살전 1:10).

헤르만 바빙크의 창조와 섭리 이해에 나타난 연속성과 불연속성

Continuity & Discontinuity in Herman Bavinck's Understanding of Creation and Providence

이 신 열

고신대학교 신학과 교의학 교수

목 차

- I. 시작하는 말 | 57
- II. 창조 | 58
- III. 섭리 | 67
- IV. 두 교리에 나타난 연속성과 불연속성 | 75
- V. 평가 및 맺는 말 | 82